

2007 중국조선족문학 우수작품집

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편집위원회 편

2007 중국조선족문학 우수작품집

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편집위원회 편



흑룡강
조선민족 출판사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2007 中国朝鲜族文学优秀作品集: 朝鲜文 / 中国朝鲜族文学优秀作品集编委会编. —牡丹江: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8. 8

ISBN 978-7-5389-1552-5

I. 2… II. 中… III. 朝鲜族—少数民族文学—作品综合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91. 9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8) 第 128719 号

书 名/ 2007 中国朝鲜族文学优秀作品集
编 者/ 中国朝鲜族文学优秀作品集编委会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3-6423758
电子信箱/ hcxmz@126.com
责任编辑/ 柳大植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李光吉
印 刷/ 牡丹江新闻传媒印务有限公司
开 本/ 787mm×1092mm 1/16
印 张/ 35.5
字 数/ 653 千字
版 次/ 2008 年 8 月第 1 版
印 次/ 2008 年 8 月第 1 次印刷
印 数/ 1-1000 册
书 号/ ISBN 978-7-5389-1552-5 (民文)
定 价/ 55.00 元

머리말

올해도 어김없이 한권의 책으로 해마다 한번씩 우리 중국조선문단을 점검하고 총화하는 계열 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의 세번째 작품집인 《2007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이 출판되게 되었다. 《2007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의 출판 역시 2007년도 우리 조선족문단의 경사라 할수 있겠다.

사실 10개의 잡지, 신문의 우수작품을 한권의 책으로 모아 묶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 출판사의 인력, 물력의 투입이 우선이지만 여러 잡지, 신문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결여된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각 신문, 잡지에서 약속했던대로 열성스레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챙겨주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기에 일이 예상보다 많이 쉬웠고 좋은 결실을 보게 되었다. 참으로 감사하다. 여러 잡지, 신문사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본 우수작품집의 작품은 여러 잡지, 신문사의 편집위원들이 당해에 본지에 발표된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보내고 편집과정중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다시 엄선했것이다. 한권의 책으로 모든 문학장르를 아우른다는 취지에 따라 당해의 소설문학, 시문학, 수필문학, 아동문학, 문학비평의 우수작품을 포함시켰고 전반 작품집에 대한 총평, 그해에 발표된 문학작품의 목록도 수록하였다.

구체적으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한 작가의 작품이 한 장르에 여러 편이 추천되어 올라오는 경우가 나타났는데 편폭의 제한으로 소설과 수필에서는 한편만 실는것을 원칙으로 했고 아동문학은 아동문학작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정황을 고려하여 한 장르에 한 사람의 작품을 두편까지도 실었으며 시 작품은 최다 외 3수 즉 네수만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독자들의 열독, 연구 편리를 위해 작품의 발표 일자, 작가략력, 그 작품의 수상정황 등을 일일이 밝혔다.

이리하여 작품집은 근 백명 작가의 백여편(수)의 작품에 60여만자분량의 무게있는 작품집이 되었다. 중국조선족우수작품집에 실린 작품들을 보면은 그해의 조선족문학의 양상이 한눈에 안겨온다. 물론 이 작품집에 그해의 모든 우수작품이 다 포함되었다고는 할수 없지만 이 우수작품집이 당해의 우리 조선족문학을 대표할수 있는 작품집으로서는 손색이 없을것이다.

앞으로도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는 중국조선족문학의 발전에 기여가 되고 문학사에 길이 남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갈것이며 따라서 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도 계속 우리 조선족문단의 양상을 일목요연하게 료해할수 있는 창구로, 중국조선족문학을 연구하는 권위성적인 자료집으로 될것이다.

2008년 6월

편집자로부터

차 례

편집자 머리말/1

소설문학

- 조룡기 향주를 지나면 천당? /3
- 량춘식 정신무진 /35
- 구호준 하루살이의 인생 /74
- 리 휘 울부짖는 성 /91
- 김서연 4am /112
- 김춘택 한 녀자가 끓이는 아이칭마라탕 /124
- 허련순 그 남자의 동굴 /140
- 김동규 리촌장의 고민 /157
- 김금희 개불 /170
- 강호원 쪽빛 /176
- 림원춘 보이는 소리 /184

시문학

- 김동진 말하는 이끼 /209
- 김 철 산사(山寺) /211
- 석 화 길을 걷는 나무(외 1수) /212
- 리문호 붓나무, 그리고 까치둥지(외 1수) /214
- 김 파 소생(외 3수) /216
- 설 인 녀자 /219
- 리상각 뼈다귀 /221

- 최룡관 돌. 22(외 3수) /222
 전춘매 성밖도 성이다 /226
 김영건 침묵하는 산을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라(외 1수) /229
 김일량 가을밤. 40(외 1수) /231
 김학송 겨울의 또 다른 풍경(외 2수) /233
 리범수 잔돈은 지갑을 만나면 늘 게면쩍어한다 /237
 리홍규 겨울나무의 가슴에(외 1수) /239
 김웅준 연변사람 /241
 김용룡 시골의 새마을(외 1수) /251
 심예란 쓰레기장 풍경 /253
 전은주 소라(외 1수) /254
 심명주 벼랑끝 고목(외 2수) /256
 김창희 어둠의 색을 보았습니까(외 1수) /258
 리임원 대륙섬 /260
 최화길 순진한 미소에 그늘이 지면 /261
 윤청남 잔디빛소리 잔잔히 향수로 저러오면 /263
 강철영 산사의 봄 /264
 류대식 숙명(외 1수) /265
 김룡환 고드름 /268
 최은희 방황(외 1수) /270
 리근영 만들기 순서와 사유 /272
 박룡철 나의 밤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273
 유 천 쑥나무고개 /274
 박경상 시월애 /275

수필문학

- 김홍란 혈연와(血燕窩) /279
 양은희 한송이 무덤으로 언덕에 피여(외 1편) /282
 리영애 “오로라”를 향한 풍경 /288
 신현철 죽음을 알라, 그리고 죽어서 살자 /291

오태호	혁명의 교과서는 없다 /295
조광명	당신은 도시인입니까 /299
김동진	노을강을 건너가는 무아의 날개 /307
김양금	늙은 버드나무 /310
현춘산	“책도적”이 그리워지는 세월 /313
남영도	그 남자의 블로그 /316
김두필	고향유정 /319
엄정자	현대인과 음악 /321
로춘애	내가 살아가는 리유 /326
장련춘	죽음도 사랑으로 /330
채영춘	송년론 /333
오옥련	산산이 부서진 그 이름이여 /335
리주천	떡갈나무 /339
서정순	필화와 밤낚시 /341
허무궁	자유의 공간, 누드신사 /344
김경화	리조트해변의 아름다움은 /347
김태현	이슬이 머물다 간 자리 /350
귀 향	조선된장과 조화인생 /353

아동문학

허두남	도시락에 담긴 사랑 /358
박룡원	아야 /364
박일호	노랑새네가 부러워요 /370
강 길	복집이와 거울속에서 나온 아이 /385
전광하	백조왕국의 이야기 /390
박영옥	영민이와 단추흑판 /394
리영철	괴상한 흡진기 /397
한석운	바다(외 2수) /402
최문섭	새의 노래 /405

김철호	산그늘 /406
김현순	봄날 /407
리 순	나는 알죠 /408
지영호	아버지의 유모아 /409
최룡관	봄은야(외 2수) /410
조룡남	제비네 학교 /412
림 철	잔디 /413
리종복	쥐약 /414
함창도	하늘을 아시나요 /415
김영능	저수지 /416
허송절	향기 /417

문학비평

김관웅	중한수교이후 중국조선족 시문학에 끼친 한국 시문학의 영향 /420
-----	---

장춘식	청출어람 /465
김호웅	조선족소설문학, 1986-2006년의 풍경 /479
산 천	우리 시단에 존재한 문제를 두고 /487
엄정자	조선민족의 디아스포라와 새로운 엑서더스 /495

김호웅	민초의 고뇌와 울분, 그리고 그 끈질긴 생명력 — 《2007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을 읽고 /509
[부록]	2007년도 중국 조선문 잡지, 신문 문학작품목록 /519

□ 소 설 문 학 □

중편소설

항주를 지나면 천당?

조룡기

1

남대근은 정말 이름 그대로 남자였다. 량조위의 은근하고 매혹적인 눈길을 가진것도 아니고 주절륜과 같은 죽여주는 멋진 스타일을 가진것도 없지만 일단 어떤 여자와 사귀고싶다는 생각을 가졌다 하면 장미를 들고 여자를 꼬시는 유치한 수완을 쓰지 않고도 십중팔구 여자에게서 벨트파워의 선물을 받아낼수 있고 어떤 여자와 하루밤 자고싶다고 작정을 하면 사귀어서 삼일만에 그 여자를 침대로 끌어오를수 있는 그였다.

“난 평범하지 않아.” 하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남대근의 평범하지 않은 것을 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1. 지금 무직업이면서도 승용차를 끌고 다닌다.
2. 머리 손질에 매차 80원씩 들어간다.
3.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하루도 떠나서 살수 없다.
4. 지금까지 장미를 사본 경력이 없다.
5. 요두환(搖頭丸)을 먹은 경력이 있다.
6. 무수히 여자와 하루밤 정을 나누어도 향기가 있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
7. 지금까지 쭈욱 까만구두를 고집, 길거리 구두닦이군들에게 발을 절대 내밀지 않지만 구두는 항상 윤이 나게 반짝인다.

2

“끝까지 견지하리(堅持到底)”라는 노래가 아두(阿杜)의 석실한 목소리

를 타고 차창밖의 습한 공기와 범벅이 되어 남대근의 귀전으로 전해온다. 인파로 범석대는 남산로레저생활거리보다 새로 준설해놓은 서호의 양공제(陽公堤)로 남대근은 천천히 핸들을 돌렸다.

양공제 랑견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있는 정원들속에 있는 파르스름한 조명들이 계수나무숲속으로 호수에 반사되어 고즈넉하게 잠들어버린 호수면을 간지럽히고있다. 하루동안 관광객들로 범석대던 서호도 이제 기진한 모양인지 제방의 밧그스름한 가로등의 불빛과 정원을 꿈결같이 비추주는 조명들의 유혹에도 체념상태에 들어서버린듯 꼬덕꼬덕 졸고있다.

제방 랑견으로 배들이 드나들도록 만들어진 아치형 돌다리를 건널 때마다 남대근은 액셀러레이터에 힘을 넣어서 갑자기 차의 속도를 빨리하여 다리위로 썽- 올라갔다가 다시 쿵- 하고 떨어지는 그런 스틸을 맛보고있었다. 속이 뒤집혀지면서 막 현훈증이 올라오는 재미가 있었다. 남대근은 오줌이 마렵다는 생각을 하며 광장(郭壯)을 벗어나 오른쪽으로 카브하는 곳에서 차를 세웠다. 옆에 서있는 플라타너스 뒤쪽까지 스적스적 걸어가서 싸아 하고 오줌을 갈졌다.

“오빠, 시원했어요?”

바지를 추슬려올리며 벨트를 조이려고 할 때 뒤에서 아가씨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씨팔! 오늘은 생각이 없는데...”

남대근은 투덜대며 채우던 벨트를 그대로 두고 몸을 돌렸다.

이목구비가 그런대로 넘어갈수 있는 녀자가 어둠속에서 고양이 같이 그를 핏기죽거리고있었다.

“오빠, 물소리 들으니깐 힘이 여간하지 않겠네요. 어디 오늘밤 즐길테를 찾고있죠?”

녀자가 사뿐히 남대근의 앞으로 접근해온다.

“얼마야?”

“500원 될것 같지 않아요?”

“뭔데 그리 비싸다니? 요즘 백화점두 세일이 만만치가 않던데...”

“거야, 일단 흥정을 붙여봐야 알게 아니예요.”

“나 그런거 별로구... 오럴섹스 알구 있지...”

녀자가 신이 난것이 틀림없었다. 바람둥이라도 웬간한 놈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는지 더욱 바싹 남대근의 몸에 밀착을 해왔다.

“어머머... 이 오빠, 프로급이다. 그런거 더 비싼데요...”

남대근은 녀자의 몸에서 풍기는 저질 향수내음에 어지럼증을 느낀다.

“그러면 됐다. 나 간다...”

남대근이 달라붙는 녀자를 뿌리치고 도어를 당기려는데 녀자가 달려들어 손목을 잡는다.

“오빠, 200원 어때요?”

그러는 녀자의 손을 잠깐 쥐었다가 남대근은 차안으로 몸을 쑥 들이밀고 시동을 걸었다. 뒤에서 “오빠, 100원 ...100원!” 하며 녀자가 발을 동둥 구르며 쫓아온다. 백미러로 녀자의 우습강스러운 거동을 보면서 남대근은 운전대를 두들겨대며 핫하하 크게 웃어제꼈다.

제방으로 질주하는 승용차와 함께 차창으로 시원한 호수바람이 불어오면서 남대근의 장난기 어린 얼굴을 어루쓴다. 남대근이 재밌다고 킁킁하며 운전을 하는데 핸드폰이 빠리릭 울려왔다. 원래 소속되었던 여행사 실장님의 전화였다. 요즘 관광의 성수기가 되어 가이드가 부족하다면서 일주일만 도와달라구 매일이다싶이 전화가 왔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형님네 서울식당으로 단체손님을 밀어주는 고마움때문에 이번에는 거절할수 없었다. 래일저녁부터 가능하다고 대충 대답해버리고 통화를 끝내버렸다.

남대근은 한국이 한번 더 경제위기의 혼썰을 먹어야 정신을 차릴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여행사에 가이드가 20명이나 되는데 그걸로 부족하다면 하루에 단체가 적어도 20개, 관광객은 400명이 더 된다는 말이다. 관광비용이 싸긴 하디지만 항주 관광지마다에 떼구름처럼 몰려다니는 한국관광객을 본다면 그게 좋은 풍경으로 보일수가 없었다.

3

남대근의 승용차는 이미 남산로에 들어섰다. 화려한 조명에 뢰봉탑(雷峰塔)이 언뜻거리며 나타난다. “백사전(白蛇傳)”에서의 법해스님이 백숙진을 잡아두었었다는 뢰봉탑이 가까와올무렵 남대근은 이상하게 사랑이란 낱말을 떠올리게 되었다.

남대근은 오래동안 사랑을 잊고 살아왔다. 이제 적어도 5년은 사랑을 잊고 주욱 살아왔던것 같다. 차뒤쪽으로 사라져가는 뢰봉탑에 머리를 한껏 젖히면서 남대근은 요즘 인터넷에서 폭발적인기를 누리고있는 “서호에는 침대 하나 있어.” 하는 사이버소설의 제목을 떠올리며 그런 침대에서 하는 섹스를 떠올려보았다. 백숙진과 허선의 섹스! 사랑하는 사람들사이의 섹스

가 어떨가고 궁리도 해보았다.

이어서 장교(長橋)공원을 지난다. 은빛의 고기비늘마냥 반짝이는 호수의 물결과 함께 장교가 시선으로 들어온다. 다리 하나에서 열여덟번 왔다 갔다하면서 사랑을 나누었다는 그 장교도 너무 수수한 모습이다. 중국의 로미오와 줄리엣, 랑산백과 축영대! 그래서 항주가 사랑의 도시, 너인의 도시, 시인의 도시라 했던가. 랑만의 도시, 랑만의 서호가에서 남대근도 로미오와 줄리엣이 될것이라고 다짐을 했던적 있다. 불과 몇년전이지만 이젠 정말 암담한 흑색TV처럼 기억속에 아슴아슴해진다.

“중국녀자는 절대 안된다.”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아혜를 연길로 데리고 갔을 때 부모님들이 노발대발하던 전경이 선히 안겨온다. 한어로 자기의 이름자를 겨우 쓰는 가정주부인 어머니는 아혜가 조선말을 알아들을수가 없다는데서 아혜를 앞에 세워두고 “어이구, 망할 정조다. 이 일 어찌지...” 하고 꾸짖질하며 남대근을 흘기는것은 그런대로 넘어갈수가 있을것 같았지만 일개 중국에서 지성인의 대우를 받는 인류평화의 공정사-교원인 아버지도 어머니와 합세하기라도 한듯 “대학공부까지 시켰더니마 되놈가시나를 며느리로... 꿈도 꾸지 마!” 하면서 밖으로 썰하니 나가버리는것이 더욱 화가 치밀어올랐다. 남대근이 알고있는 아버지는 대개 이러했다. 정면충돌은 절대 피하고 입을 꼭 다물어버리는것이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의사였다.

이미 찾아온 손님을 반겨주지는 못할지언정 마구 쫓아낼 잡도리를 하는 부모님들때문에 화가 났으며 아혜앞에서 난감해진것은 남대근이었다. 그래서 집에서 하루밤도 자지 못하고 아혜와 으스스한 려관방신세로밖에 될수 없었다. 아혜는 침울한 기분 그대로 장백산 천지구경에 억지로 따라나섰으며 천지구경을 하고 려관방에 다시 와서 자고 이튿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아혜는 이미 떠나가버렸었다.

아혜!

남대근은 그때 아혜를 사랑했었다. 한번의 고향행차에서 아혜와 헤어지고는 남대근도 다시 아혜를 찾지 않았다. “우리 다시 만날 필요가 없다.”는 통화 하나로 남대근과 아혜의 연줄은 끊어져버렸다. 그뒤로 남대근은 다시는 연애라는것을 몰랐고 부모님들에게도 명절이 되여야 의무감으로 전화를 넣어주곤 하였다.

“중국녀자와 수없이 섹스를 할것이다.”

반발로부터 시작되여서 남대근은 바람둥이가 되어버렸다.

남산로 생활레저거리 량권의 레스토랑, 술집, 차집, 화랑, 커피숍이 언뜻언뜻 스쳐서 뒤로 달아난다. 남대근은 이상할 정도로 침울해지는 자신을 본다. 중국미술학원이 가까와온다. 남대근의 눈으로 너무 익은 모습이 안겨온다.

“이 저녁에 저 애가 뭘 하고있을가?”

분명 조카인 남해였다. 플라타너스에 힘없이 기대여 서있었다. 몸뒤쪽으로는 뭔가를 감추고있는것이 웅숭그린 새우같이 보였다.

“자숙이!”

남대근은 차를 남해의 바로 앞에 갑자기 급정거시키면서 헤드라이트불빛을 남해한테로 보냈다. 화들짝 놀란 남해는 두손을 머리로 채양을 만들며 비실비실 뒤쪽으로 뒤걸음질쳤다. 남대근의 첫눈에 안겨드는것이 남해의 손에 들려있는 장미였다. 강렬한 헤드라이트불빛에 장미송이마다에 매달려있는 물방울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였다. 남대근은 차경적을 뺑뺑 올렸다. 이마살을 찌프리며 동공의 조절을 마친 남해는 차속의 주인을 확인하고나서 인츰 장미를 몸뒤쪽으로 숨기며 차로 다가왔다.

남대근이 차창으로 머리를 내밀어 남해에게 물었다.

“야, 이 저녁에 여기서 뭘 해?”

“아니요...”

“뭐가 아인데... 뭘 하는가 묻는데...”

남대근은 차에서 내렸다.

가로등불빛이지만 얼굴이 새빨강게 상기된 남해의 얼굴을 금방 볼수 있었다.

“누굴 기다리구 있니?”

“예...”

“녀자친구?”

“...”

“어쭈, 자숙이 벌써 장미까지 사들구 데이트 시작!”

남대근은 남해의 몸뒤에 숨겨져있는 장미를 빼앗아내며 골려주었다.

“계집애, 오늘두 안 나와...”

남해가 바락 성을 내였다. 남대근과 성내는것이 아니였다. 약속했던 녀자친구때문에 성을 내고있었다. 남해는 삼촌의 손에서 장미를 나꾸어채

서는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것도 모자라서 씹씹 황소숨을 몰아쉬며 장미를 발로 짓밟았다. 남해의 운동화밑굽 언저리는 이내 장미빛으로 물들여졌다.

남대근의 마음속으로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스쳐지나가는듯하였다. 자기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남해에게도 이런 일면이 있다는것을 새삼스레 느끼면서 남대근은 적이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남대근은 형님네를 따라 항주에 온 남해가 너무 순진하고 너무 유순해서 학교 가서 업수임당한다구 항상 남자는 어찌구저찌구하면서 남자로서의 도리를 남해한테 입력시키기에 바빴다. 때때로 헬스장, 태권도장에랑 일부러 데리고 다니기도 하였다. 그런데 콘크리트바닥을 피빔으로 물들이고있는 조폭한 남해를 보면서 남대근은 다시 피씩 웃어버렸다.

남해를 태워 집까지 바래다주면서 아무리 얼리고 닥쳐도 남해는 머리를 외로 돌려버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5

삼촌의 차에서 내려 아파트단지안으로 들어서면서 남해는 정말 죽기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했다. 장미를 들고 저녁내내 미술학원 문앞에서 기다린것이 헛수고였던것보다 삼촌한테 그런 물골을 보여주었다는데서 더욱 화가 났다. “할일없이 왜 서호가에 나왔지.” 하며 삼촌을 욕하기도 하였다. 이제 어떻게 삼촌의 집으로 거리낌없이 갈수 있을가 생각하니 머리가 터져나갈듯하였다.

계수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서있는 단지안으로 들어오다가 남해는 쓰레기통옆에 무뎉히 싸여있는 쓰레기를 냅다 걷어챘다. 그러고나서 계수나무를 신경질적으로 마구 흔들어대었다. 지금 이 시간 집에 들어가도 엄마, 아빠는 집에 있을리 만무했다. 매일마다 10시가 되어 식당문을 닫고 11시가 되어서야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 8년 돈을 벌어 돌아와서 삼촌인 남대근의 주선으로 여기 항주에 와 한식점을 차린지가 3년이 되었고 장사가 제 궤도에 들어서게 되자 엄마, 아빠 따라 항주로 남해가 온지가 이제 1년이 좀 넘는다.

남해는 정말 지금 집으로 들어가기 싫은것처럼 1년전 항주로 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엄마, 아빠는 8년동안이나 부모된 노릇을 못했다 하면서 이제 돈도 벌었지 하니 세식구 함께 살아야 한다며 극구 할머니에게 있